

# 고등학생의 금융지식 수준차이에 관한 연구

조영석(목포대) · 박송춘(목포대)

## 【 요약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5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금융 및 실용경제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경제지식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것으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이 전남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역별로 보면 수도권 학생들은 소득증대 등 적극적 금융지식, 전남지역은 지출 및 부채관리 등 방어적 금융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에서 경제관련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더 높았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로 경제지식을 접하고 있으나 금융이해력은 오히려 교과과정 또는 서적을 통해 습득한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넷째, 은행통장, 카드사용 등 청소년기의 금융경험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서 가장 낮은 금융이해력을 보였다.

3년간의 실제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금융경제교육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용어】 금융이해력(FQ), 경제교육, 금융경험, 고등학교, 수도권, 전남지역

## 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겪게 되면서 금융 및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경제교육이 민간위주로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금융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2004년 경제교육향상법 및 조기 금융교육법을 제정하여 전미경제교육협의회(NCEE)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총 사업재원의 40~50%를 지원하면서 학생과 교사 및 청소년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 및 금융소외자들의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 향상을 위해 2005년 국가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1,000만명을 목표로 적극적인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경제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금융경제 교육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7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2008년 9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교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경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9년 2월 6일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9년 5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sup>1)</sup>

“경제교육지원법”은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추진방향 등을 정하고,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를 근거로 2011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일반사회 교과에서 경제 관련 단원이 늘어나는 등 경제교육이 한층 강화되고, 2012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 교과에도 소비자 금융교육 부문이 추가된다. 이렇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려면 실용적인 금융경제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교육을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95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5년간 전국에 46곳의 경제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각 지역경제교육센터에서는 경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 전공지식 재교육, 금융경제 이슈교육, 경제교육법 강연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또한 실용 경제교육을 위해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경제 골든벨, 모의 주식시장 체험 등 경제 캠프도 개최하게 된다.<sup>2)</sup>

경제교육지원법에 의한 금융경제 교육은 실용적인 경제 및 금융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물론이고 금융경제지식이 취약한 중·고교생, 대학생, 주부, 파산자, 개인회생

---

1)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경제교육지원법 제2조 1항)

2)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충청권 등 4대 광역 경제권에 1개씩, 제주와 강원 등 2대 특별 광역경제권에 1개씩 그리고 지자체 설립 1개 등 총 7개가 들어서며 2010년 9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개씩 5년간 전국에 46곳의 경제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된다.(2009.1.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및 연합뉴스 뉴스 자료 참조)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게 된다. 교육내용도 실용성과 합리성을 강조한 생활경제지식과 금융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교육방식은 단순한 경제원리 암기 보다는 체험위주의 수업이 강조된다. 또한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장교육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입체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정부의 실용적인 금융경제교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실용적인 금융경제교육이 추구해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2월에 전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지식 수준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들의 금융경제지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금융이해력 테스트 문제를 활용하였는데, 문제지는 2006년 미국의 금융경제교육기관인 Jump\$tart에서 개발한 것으로 미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 FQ)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것이다.<sup>3)</sup> 그리고 본 연구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개인의 특성과 금융환경 및 금융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몇 가지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sup>4)</sup>

연구진행에 있어 2006년에는 전남지역 및 수도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2007년 및 2008년에는 동일한 문제를 활용하여 전남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알아보고 지역별 차이와 연도별 변화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3년간 연속으로 전남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경제적 특성과 금융경험이 금융이해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찾아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경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연구는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은 연구방법과 연구의 설계를 제시하며 제4장은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를 비교 설명한다. 그리고 제5장은 결론 및 시사점으로 구성된다.

3) Jump\$tart는 미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화폐관리, 저축과 투자, 현명한 신용사용 등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 금융기관, 비영리 경제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연합조직이다.

4) 본 연구에서 금융이해력이라 함은 금융경제지식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경제지식의 수준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미국의 Jump\$tart에서 청소년의 경제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 : FQ) 문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II. 선행연구

오영수·도규태(2005)는 2004년 5월~6월 대구지역 고등학생 1,2학년 967명(남 500명, 여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구지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평균 45.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미국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동일문항으로 2003년 실시한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통합적인 경제교육, 현장연계 경제교육, 체계적인 교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경원 등(2006)은 2005년 가을 전남 동부지역 고등학생 525명과 교사 2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미국 고등학생들의 경제지식을 테스트 하는 TEL을 이용하여 동부전남 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경제이해력에 미치는 유의한 변인들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계열, 성별, 진학 여부, 성적, 생활수준, 학교 소재지, 학교규모는 유의한 반면, 교직경력, 교사의 경제과목 이수학점, 학년, 경제영역 선호도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 동부지역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수준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보다 높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제이해력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영석·박송춘(2008)은 2006년 11월~12월 전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 552명(남 229명, 여 323명)을 대상으로 금융경제지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2006년도 기준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미국(52.4점)>수도권(48.2점)>전남(46.5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저축, 금전관리, 저축·투자관리 영역은 수도권 학생들의 이해력이 높은 반면, 지출·부채 영역은 전남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보험'에 관한 문항은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월등(+40.9점)히 높았는데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금융경제지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월평균 용돈이 과도하게 많거나 너무 적은 경우에 금융이해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금융경제 교실”의 일환으로 강의에 앞서 강의대상자인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sup>5)</sup>

설문은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에게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 : FQ)을 측정하는 30문항을 풀도록 하고, 동시에 경제적, 환경적, 경험적 특징들을 구분한 설문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입수능시험이 끝난 매년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남지역에 해당하는 목포 및 나주, 광양의 3개 시지역과, 해남, 함평, 강진, 순창 등 4개 군지역에 소재한 19개 고등학교(인문고 15개교, 실업고 3개교, 특목고 1개교)의 3학년 학생 1,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중 자료 및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문항의 답안이 일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1,393명(남 674명, 여 7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연도별로는 2006년의 경우 표본전체(7개교)가 시지역에 소재한 고등학생이었으나, 2007년은 시 소재 5개교 및 군소재 2개교였고, 2008년에는 시 소재 2개교, 군소재 3개교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특목고 1개교, 2007년 및 2008년에는 실업고 각각 2개, 1개교씩 포함되었다.

**<표 1> 표본의 구성**

(단위 : 명,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대상학교수 (소재지별)	7	7	5	19
	시 7	시 5, 군 2	시 2, 군 3	시 14, 군 5
대상인원	706	683	445	1,834
표본 (남/여)	552 (229/323)	491 (274/217)	350 (171/179)	1,393 (674/719)
표본채택율(%)	78.2	71.9	78.6	76.0
실시기간	06.11.22~12.12	07.11.30~12.18	08.12.01~12.19	각 3주

\* 2006년에는 특목고 1개교, 2007년 및 2008년에는 실업고 각각 2개, 1개교씩 포함되었음.

5) 전라남도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용적이고 사례중심의 경제교육을 지향하는 “찾아가는 금융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학생은 방학을 이용하여, 고교생은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이후인 11월~12월에 주로 진행된다.

## 2. 연구의 설계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비교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지는 미국의 JumpStart에서 미국 12학년 금융소비자 교육 국가기준에 의거하여 개발한 것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행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사회과목 학습내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 맞도록 용어와 표현을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문제지는 모두 30문항으로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7문항), 재무(금전)관리(4문항), 저축과 투자(8문항), 지출과 부채(11문항) 등 모두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소득의 원천, 합리적인 구매와 소비, 개인 신용 관리요령, 경제 기초지식,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 금융상품의 활용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항들을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조사는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과 2006년도에 실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003년 7월, 2006년 9월에 수도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2004년 대구지역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sup>6)</sup>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은 2006년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한국의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게 2006년 9월 실시하였으며, 수도권과 동일한 문제를 전남지역 학생들에게 3년간 연속 실시한 것이다.

금융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2006년의 경우 측정시점은 수도권(2006년 9월)에 비해 약 2개월 늦은 2006년 11월~12월에 측정되었다. 수도권과 전남지역의 설문조사 시점이 차이가 있으나 해당 문항에 대한 정보의 공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007년과 2008년은 수도권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없었으므로 전남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 통계량

---

6)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2003년에 국내 최초로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이후, 2004년 중학생, 2005년 초등학생, 2006년 고등학생, 2007년 중학생, 2008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단계별 금융지식 수준 및 금융교육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설문은 2003년도 측정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설문과 유사하게 난이도를 적용하되 최근의 국내 금융제도 및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일부 항목 수정되었다.

아래의 <표 2>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 결과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남지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각각 평균 46.5점, 46.0점, 44.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녀의 성별로 구분하여 평균을 보면 여학생은 47.1점, 남학생 44.5점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5.47%(평균 2.5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점수는 86.7점이었으며, 최저는 6.7점, 표준편차는 14.0~18.1%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집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2006년 측정된 특목고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은 평균 62.4점으로 2006년도 평균점수에 비해 15.9점(34.2%)이 높았으며, 이들의 표준편차도 6.7%에 불과하여 다른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표준편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연도별 평균점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3년간 평균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소재한 학교의 지역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부 도시지역에 소재한 고등학생들의 표본이었던 2006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2008년도에는 군지역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표 2> 표본 및 기술적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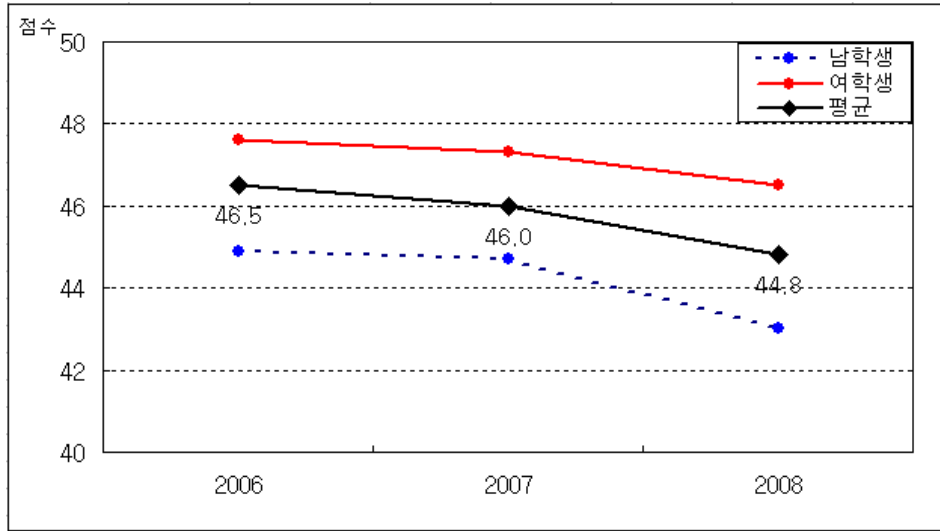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

구 분		Sample	Mean*	Max.	Min.	Standard Deviation
2006	남	229	44.9	86.7	10.0	15.4
	여	323	47.6	80.0	10.0	14.0
2007	남	274	44.7	80.0	13.3	17.3
	여	217	47.3	80.0	10.0	15.9
2008	남	171	43.0	76.7	13.3	14.2
	여	179	46.5	83.3	6.7	18.1

\* 2006~2008기간중 연도별 평균점수는 각각 46.5, 46.0, 44.8점으로 나타남.

(2006년에 포함된 특목고 1개교는 32명이며, 평균 62.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1> 연도별 평균 점수



## 2. 지역별, 영역별 금융이해력 비교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은 수도권 학생에 비해 전체평균으로는 5.0%(2.4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7)</sup>

<표 3> 고등학생의 지역별, 영역별 금융이해력 비교

(단위 : 점)

구 분	전남지역				수도권 (2006)	미국 (2000)*
	2006*	2007	2008	3년 평균		
소득의 이해	44.5	44.4	42.3	43.7	50.6	57.6
금전(재무)관리 이해	52.3	52.0	49.0	51.1	48.3	46.8
저축과 투자의 이해	46.5	45.0	43.2	44.9	50.5	45.3
지출과 부채의 이해	45.6	45.5	46.0	45.7	45.0	52.1
<b>전체 평균</b>	<b>46.5</b>	<b>46.0</b>	<b>44.8</b>	<b>45.8</b>	<b>48.2</b>	<b>51.9</b>

주) 2006년 미국의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결과는 총점(52.4점)만 공개되었음.

\* 자료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및 금융감독원(2006), 조영석·박송춘(2008)

7) 조사대상 학생들이 수도권은 고 2, 전남지역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차이는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2006년) 고등학생들의 점수와는 12.6%(6.6점)나 낮은 점수이다. 영역별로는 소득, 저축과 투자의 이해 영역은 수도권 학생들이 각각 13%와 11% 높게 나타난 반면, 금전(재무)관리, 지출과 부채의 이해 영역은 전남지역 학생들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4>를 보면 금전관리 영역에서도 전남지역 학생들의 이해력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전관리 영역에서 특별히 점수차이가 크게 나타난 1개(제7번) 문항을 제외하면 금전관리 영역은 평균 9.8점(20.3%), 전체 평균은 3.9점(8.1%)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수도권과 전남지역의 문항별 비교

<표 4>는 전남지역 고등학생의 연도별 점수와 수도권 고등학생(2006년)과 문항별 정답률과 순위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 4>의 문항별 정답률을 두 지역간으로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정답률 순위를 보면 수도권 및 전남지역의 학생들 모두 대체로 비슷한 난이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저축과 지불수단, 소득수준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도가 높은 반면, 세금, 신용카드,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이해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년간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영역 및 문항별로 살펴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금융이해력은 수도권 고등학생들에 비해 평균 5.0%(2.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에 비해 오히려 2007년 및 2008년도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문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2006년에는 시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7년 및 2008년에는 농촌에 해당하는 군지역 소재 학교 및 실업고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은 영역별로 연도별 점수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반면, 지출과 부채의 이해 영역에서는 소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역별 금융이해력 차이를 보면,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은 소득, 금전관리, 저축·투자 영역에서는 각각 1문항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수도권 고등학생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부채 영역에서는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의 이해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문항 중 5문항) 이것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지출관리 및 부채측면에 민감한 사회적

<표 4> 영역별, 문항별 정답률 추이

영역	문항	질문내용	전남 고등학생 정답률				비교	
			2006	2007	2008	평균	수도권(2006)	차이
소득의 이해	5	조세정책과 영업이익 변화	63.6	66.7	62.9	64.4	72.5	8.1
	28	소득의 원천	62.1	56.1	53.5	57.2	65.4	8.2
	29	<b>개인능력개발과 소득수준 변화</b>	62.0	59.2	55.3	58.8	73.5	<b>14.7</b>
	2	부가가치세의 의미	51.1	45.9	48.1	48.4	45.5	(2.9)
	26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액 변화	26.3	26.7	26.8	26.6	35.4	8.8
	16	소득과 세금	24.5	25.9	24.6	25.0	25.0	0.0
	18	<b>학업성취와 개인소득 수준</b>	21.7	30.6	24.8	25.7	37.1	<b>11.4</b>
		<b>소 계</b>	<b>44.5</b>	<b>44.4</b>	<b>42.3</b>	<b>43.7</b>	<b>50.6</b>	<b>6.9</b>
금전(재무)관리 이해	30	생명보험 가입의 필요성	59.1	58.8	49.8	55.9	68.1	<b>12.2</b>
	25	회사가 부담하는 은퇴소득의 이해	54.5	54.5	55.1	54.7	61.7	7.0
	7	<b>자동차보험 가입의 효과</b>	54.0	56.5	51.4	53.9	13.1	<b>(40.8)</b>
	22	인플레이션과 소득수준의 변화	41.7	38.0	39.8	39.8	50.1	<b>10.3</b>
		<b>소 계</b>	<b>52.3</b>	<b>52.0</b>	<b>49.0</b>	<b>51.1</b>	<b>48.3</b>	<b>(2.9)*</b>
저축과 투자의 이해	14	안전한 금융회사 선택	75.0	76.5	69.6	73.7	85.1	<b>11.4</b>
	15	<b>예금자 보호제도의 이해</b>	61.6	50.2	42.5	51.4	50.9	<b>(0.5)</b>
	19	노후자금 마련과 저축	57.3	59.2	48.1	54.9	63.0	8.1
	13	<b>목돈마련에 필요한 저축의 이해</b>	57.2	58.4	55.7	57.1	69.9	<b>12.8</b>
	10	비상지출에 대비한 저축방법	41.8	43.1	42.2	42.4	44.0	1.6
	3	예금계좌와 이자의 의미	31.7	31.0	35.3	32.7	36.7	4.0
	17	인플레이션과 저축	31.3	31.0	34.2	32.2	36.1	3.9
	9	장기투자의 수익을 비교	16.5	10.6	18.3	15.1	18.6	3.5
	<b>소 계</b>	<b>46.5</b>	<b>45.0</b>	<b>43.2</b>	<b>44.9</b>	<b>50.5</b>	<b>5.6</b>	
지출과 부채의 이해	4	지불수단의 이해	77.4	83.5	85.1	82.0	83.6	1.6
	1	<b>신용정보제도의 이해</b>	66.7	60.0	67.1	64.6	58.6	<b>(6.0)</b>
	27	신용정보기록과 대출심사	59.4	54.9	57.5	57.3	61.1	3.8
	12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대금 결제	49.6	48.2	47.5	48.4	49.2	0.8
	11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47.3	48.2	41.6	45.7	45.0	(0.7)
	21	<b>개인신용등급과 대출가능금액</b>	46.7	50.2	48.8	48.6	40.9	<b>(7.7)</b>
	23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용	46.6	42.4	42.6	43.9	45.3	1.4
	6	부채와 재정적 이익효과	42.2	42.4	42.8	42.5	36.4	<b>(6.1)</b>
	20	신용카드 이용과 금융비용 발생	27.5	22.7	25.9	25.4	28.1	2.7
	8	<b>대출기관과 이자비용</b>	22.5	32.2	30.7	28.5	35.1	6.6
	24	신용카드 도난사용과 소유자 책임	15.8	16.1	16.1	16.0	11.3	<b>(4.7)</b>
	<b>소 계</b>	<b>45.6</b>	<b>45.5</b>	<b>46.0</b>	<b>45.7</b>	<b>45.0</b>	<b>(0.7)</b>	
평균		<b>합 계</b>	<b>46.5</b>	<b>46.0</b>	<b>44.8</b>	<b>45.8</b>	<b>48.2</b>	<b>2.4*</b>

주) 7번 문항을 제외하면 금전관리영역은 9.8점, 전체평균은 3.9점 더 낮게 나타남.

\* 문항의 배열순서는 2006년 기준으로 영역별로 정답률이 높은 순서로 정리한 것임.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평소 생활주변 및 가정환경의 영향이 금융이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넷째, 개별 항목별로 보면, 2/3 이상의 항목에서 전남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에 비해 금융이해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자동차보험, 예금자보호제도, 신용정보제도, 개인신용관련제도, 부채의 효과, 신용카드 도난 등에서만 전남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개인능력과 소득수준, 학업성취와 개인소득, 생명보험 가입, 금융기관 활용 및 저축 항목에서는 수도권 학생들의 이해력이 매우(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도권 학생들은 소득증대 방법 등에 관한 적극적 금융지식에 관한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은 대출 및 부채관리나 보험혜택 등 방어적 금융지식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융이해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금이나 금융제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5>는 수도권과 전남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구분한 것이다. 표를 보면, 조영석·박송춘(200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수도권 학생들은 적극적 금융지식이, 전남지역 고등학생은 방어적 금융지식이 높다는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즉,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수도권 학생들과 전남지역 학생들 간에는 분명한 금융지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융이해력의 차이가 수도권 학생들은 적극적 금융지식에서 유리한 반면, 지방학생들이 방어적 경제지식에서 더 높게 나타난 특성의 차이는 향후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에 소득 및 경제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 상대적 우위 항목 비교**

구분	수도권 고등학생이 10점 이상 높은 항목	전남지역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	두 집단간 비슷한 항목
문항 내용 (점수차이)	개인능력개발과 소득수준 변화 (14.7) 목돈마련에 필요한 저축의 이해 (12.8) 생명보험 가입의 필요성 (12.2) 학업성취와 개인소득 수준 (11.4) 안전한 금융회사 선택 (11.4) 인플레이션과 소득수준의 변화 (10.3)	자동차보험 가입의 효과 (40.8) 개인신용등급과 대출가능금액 (7.7) 부채와 재정적 이익효과 (6.1) 신용정보제도의 이해 (6.0) 신용카드 도난사용과 책임 (4.7)	소득과 세금 (0.0)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대금 결제 (0.8)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0.7) 예금자 보호제도 (Δ0.5)
특징	소득증대 관련 적극적 금융지식	부채관리 등 방어적 금융지식	세금 및 제도적 분야

여섯째,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자동차 보험’(7번 문항)에 관한 이해력은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이 월등(+40.8점)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평균 전남 53.9점, 수도권 13.1점) 이는 3년 연속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다른 항목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sup>8)</sup>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관한 [7번 문항]을 제외할 경우 수도권 학생들이 전남지역 학생들보다 금전관리 영역에서는 평균 9.8점(서울 60.0, 전남50.2), 전체평균은 3.9점(서울 49.4, 전남 45.5)이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조영석·박송춘(2008)은 전남지역의 교통사고율이 오랜 기간 높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3년간 지속적으로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4. 금융지식 및 금융경험에 따른 금융이해력 비교

##### 1) 경제수업 및 금융지식, 소득수준의 차이

<표 6>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수업 및 소득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표 6>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경우 약 절반 정도(2007년 57%, 2008년 41%)만이 학교 수업에서 경제관련 과목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제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경우의 금융이해력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6점, 5.5%) 및 2008년(5.3점, 11.1%) 모두 경제수업을 배운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6> 경제수업 및 금융지식 수준에 따른 금융이해력 비교

구분	경제수업경험		금융지식 습득						소득수준		
	있다	없다	부모	서적	교과서	인터넷	신문	방송	상	중	하
2007	47.3	44.7	52.2	57.3	50.0	46.7	43.2	45.0	37.0	46.1	47.7
(비중)	0.57	0.43	0.08	0.02	0.02	0.26	0.08	0.54	0.04	0.70	0.26
2008	47.9	42.6	49.5	51.3	51.0	43.5	47.6	43.0	44.4	45.1	44.5
(비중)	0.41	0.59	0.12	0.03	0.02	0.31	0.08	0.43	0.05	0.54	0.41

\* 2006년의 경우 동 문항에 대한 설문내용이 없었음.

8) 7번 문항은 “만일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낸다면 여러분 차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오영수·도규태(2005)에 의하면 대구지역 학생들은 동 문항에서 평균 8.1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의 금융지식은 주로 방송(48.5%)과 인터넷(28.5%)을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부모, 신문, 서적, 교과서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오히려 서적이거나 교과서를 통해 습득한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이 현실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확인된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실제적인 금융이해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방송과 인터넷의 금융정보는 피상적으로 짧은 시간만을 접촉하게 되므로 학생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신문의 보도내용도 금융이해력 향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나 서적을 통한 금융지식이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므로 중,고등학교 학습과정에 금융 및 경제지식에 관한 내용이 보다 많이 포함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9년부터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을 통해 초,중등 과정에서 실제적인 금융경제지식 교육이 강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부모 소득수준별 차이에 따른 금융이해력의 정도는 2007년의 경우 소득 상위층 학생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반면 2008년에는 소득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미국의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 상위층의 분포가 매우 낮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측정오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금융경험 및 용돈 차이에 따른 비교

아래의 <표 7>은 고등학생들이 은행통장 또는 체크(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월평균 사용하는 용돈의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금융이해력을 비교한 것이다.

<표 7>에 의하면 은행통장은 80%에 가까운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체크카드는 2006년 30% 수준에서 매년 늘어나서 2008년에는 51%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에 있어 집단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은행통장을 사용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5.1~10.9% 금융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의 경우 매년 사용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미경험자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점수차이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9) 이러한 사실은 2006년 JumpStart가 조사 발표한 결과와는 반대 현상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 8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의 금융이해력은 55.6점인 반면, 2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은 48.5점으로 나타났다.("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OECD Policy Brief(July, 2006)

체크카드 사용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집단이 17.3%나 금융이해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간의 평균차이에 대해 분산분석(ANOVA)을 통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각 통계적 유의수준 1% 및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은행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금융거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적 지식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사례중심의 금융경제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력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7> 금융경험 및 용돈 차이에 따른 금융이해력 비교

구 분	은행통장		체크(교통)카드		월 용돈			
	있음	없음	사용	미사용	10만원 이상	5~10만	3~5만원	3만원 미만
2006 (비중)	47.9	43.7	47.2	48.6	38.6	48.2	49.6	46.0
	0.74	0.26	0.30	0.70	0.11	0.22	0.37	0.29
2007 (비중)	46.8	44.4	47.8	45.5	45.4	46.9	45.6	46.6
	0.74	0.26	0.29	0.71	0.13	0.26	0.36	0.25
2008 (비중)	46.8	41.7	48.2	41.1	36.0	44.7	46.5	44.7
	0.85	0.15	0.51	0.49	0.05	0.18	0.31	0.45
3년 평균 (비중)	47.2	43.3	47.7	45.1	40.0	46.6	47.2	45.8
	0.78	0.22	0.36	0.63	0.10	0.22	0.35	0.33
F-값	32.321***	17.335***	15.780***	4.514*	21.207***	52.140***	30.478***	7.147**
R <sup>2</sup>	0.954		0.966		0.950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그런데 월 용돈 차이에 따른 금융이해력은 재미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월 용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집단의 금융이해력이 가장 낮게(다른 집단에 비해 15% 이상 낮음) 나타난 반면 적당한 중간수준의 용돈을 사용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용돈수준별 금융이해력 차이는 금융감독원(2006), 서경원 외(2006), 조영석·박송춘(2008)에서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용돈이 가장 많은 집단의 금융이해력이 일관되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용돈은 학생들에게 보다 계획적인 소비습관을 길러 줄 수 있지만, 무분별한 용돈의 지출은 학생의 금융지식 향상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는 격언처럼 통제되지 않은 가운데 지불하는 많은 용돈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칫 무분별한 경제소비 습관을 길러 장차 아이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Financial Quotient : FQ)을 측정하는 30문항을 풀도록 하고, 동시에 경제적, 환경적, 경험적 특징들을 구분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통계자료는 전남지역의 19개 고등학교(인문고 15개교, 실업고 3개교, 특목고 1개교)의 3학년 학생 1,393명(남 674명, 여 7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및 집단간의 특성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이 전남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년 연속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영역별 금융이해력 차이를 보면,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은 소득, 금전관리, 저축·투자 영역에서는 각각 1문항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수도권 고등학생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출·부채 영역에서는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의 이해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문항 중 5문항) 이것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여건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지출관리 및 부채측면에 민감한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항목별로 세분해 보면 수도권 학생들은 소득증대 방법 등 적극적 금융지식에 관한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전남지역 고등학생들은 대출 및 부채관리나 보험혜택 등 방어적 금융지식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융이해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는 향후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에 소득 및 경제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경우 약 절반 정도(2007년 57%, 2008년 41%)만이 학교 수업에서 경제관련 과목을 배웠으며, 경제관련 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높은 금융이해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2.6점, 5.5%) 및 2008년(5.3점, 11.1%) 모두 경제수업을 배운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금융경제 지식은 주로 방송(48.5%)과 인터넷(28.5%)을 통해 습득하고 있었으나, 금융이해력

수준은 오히려 서적이나 교과서를 통해 습득한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소득수준별 차이에 따른 금융이해력의 정도는 연도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보다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금융경험과 금융이해력에 관한 분석에서는 은행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더 높은 금융이해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용돈이 가장 많은 집단의 학생들이 금융이해력에서 3년 연속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일치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에 상당한 금융이해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생활주변의 경험적 사건에서 더 높은 금융이해력을 얻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방송보다는 서적이나 교과서를 통해 호기심을 충족하며 얻은 적극적 지식에서 더 높은 학습인지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금융경제교육이 실시될 것이므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지방 및 농촌의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사례중심 또는 실제 생활과 연계된 실용적 금융경제지식의 전달이 보다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강화 방안’ (2007.11)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2008.9)  
김경모, “경제교육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틀”, 『경제교육연구』, 제11권 1호, 2004.  
김근영 외,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김진영·박형준,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교육연구』, 제36권 1호, 200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 및 경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2007.  
박문규, “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테스트 결과 분석“, 『경제교육』, 제22호, 2003.  
서경원·정금영·이윤희, “전남 동부지역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3권 1호, 2006, pp. 71-98.  
오영수, 도규태,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도와 바람직한 금융교육 방향 탐구”, 『중등교육연구』, 제53권 1호, 2005, pp. 283-300.



- 조영석·박송춘, “고교생 금융경제지식의 지역별 차이 연구”, 『경제교육연구』, 제 15권 2호, 2008, pp. 121-143.
- 금융감독원,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매일경제신문사, 2006.
- 금융감독원, 『청소년을 위한 금융이야기』, 금융감독원, 2003.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경제생활과 증권』, 한국증권업협회, 2006.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매일경제신문사. 2003.
- 최종민, “전북지역 고등학교 경제교육 실태조사 분석”, 『경제교육연구』, 제15권 2호, 2008, pp. 1-24.
- 미국 전미경제교육협의회 홈페이지 [www.ncee.org](http://www.ncee.org)
- 미국 Jump\$Start 홈페이지 [www.jumpstart.org](http://www.jumpstart.org)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 [www.kcie.or.kr](http://www.kcie.or.kr)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홈페이지 [www.fq.or.kr](http://www.fq.or.kr)
- OECD 홈페이지, [www.oecd.org](http://www.oecd.org)
- Becker, W. G., W. Greene, & Sherwin Rosen, "Research on High School Economic Education",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80, No. 2. 1990.
- FSA,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Schools: A UK Benchmark Study",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U.K. (<http://www.fsa.gov.uk>)(2006)
- Highsmith, Robert, "The Research Core of Economic Education", Theory into Practice, Vol. 26, No. 3. 1988.
- Lusardi, Annamaria, Financial Literacy : An Essential Tool for Informed Consumer Choice? Working Paper(2008). <http://www.nber.org/papers>.
- Lusardi, Annamaria, Olivia Mitchell, and Vilsa Curto , "Financial Literacy Among the Young," mimeo, Dartmouth College(2008).
- OECD,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OECD Policy Brief, July. 2006, (<http://www.oecd.org>)
- OEC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OECD, 2005, (<http://www.oecd.org>)
- Saunders, Phillip, "Preparing Future Teachers for Economic Competence: Content Appraised", Social Education, April. 1966.
- Soper, John C. & William B Walstad, "What is High School Economics? Posttest Knowledge, Attitudes, and Course Content",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1988.
- Walstad, William B. & Ken Rebeck, Test of Economic Literacy, New York:

National Council of Economic Education. 2001.

Walstad, William B. & John C. Soper, "What is High School Economics? Factors Contributing to Student Achievement and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1989.

<http://www.ncee.net>

<http://www.economist.com>, "Getting it right on the money", *The Economist*, Apr 3rd 2008,

<http://www.fsa.gov.uk/pubs/consumer-research/crpr69.pdf>, Financial Capability : A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2008.7)

OECD(2006),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OECD Policy Brief* (<http://www.oecd.org>)

OECD(2005),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OECD(<http://www.oecd.org>)